

“완충녹지에 나무 심어주세요”

주민들 “장기 방치 소음·분진 피해” 일부 소유주들 무허가 건물 영업도

광주 시내 주요 도로변 등의 완충 녹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수목 식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면서 소유주와 인근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시내 완충녹지는 모두 250만8

천266㎡로 이중 39%인 광산구 하남산단·남구 송하동 일원 등 98만7천998㎡에만 가로수 등이 심어져 공해나 자연재해로부터 주택가를 보호하는 본래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32%인 광산구 신창·수완지구 등 81만8천627㎡는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나머지 27%인 북구 용봉동 호남고속도로 주변 등 70만1천641㎡는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미 조성된 지역은 길게는 30여 년 전, 짧게는 15년 전에 완충녹지 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와 올해 완충녹지 예산은 4억원 씩에 불과하다. 이 예산도 사유지 매입비로 쓰이며 조성 사업비는 단 한푼도 없다.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면 서 관리부실로 이어져 완충녹지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완충녹지=수질오염·대기 오염·소음·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 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



광주시 북구 용봉동 S아파트 앞 완충녹지. 이 녹지는 지난 1985년 11월12일 완충녹지로 지정됐으나 예산난 때문에 조성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jwi@kwangju.co.kr

지난 1985년 11월12일 완충녹지로 지정된 북구 용봉동 S아파트(730세대) 앞 2천600㎡의 녹지는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성계획조차 없이 방치돼 있다.

주민들은 소음·분진·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완충녹지 정책에 대한 시민공청회 및 용역을 통한 올바른 녹지정책을 수립하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입주민 양모(70)씨는 “아파트 앞에서 호남고속도로 사이에 묶인 완충 녹지지역 80% 이상이 사유지다”며 “일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주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 영업을 하는데, 관할 구청은 단속은커녕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완충녹지 조성 사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조만간 사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충형 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시 서구 풍암동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21일 준공식을 갖고 12월 까지 24개 부처 전산실이 이사회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광주시청 제공)

광주 제2 통합전산센터 준공

서구 풍암동...24개 부처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대한민국 정보화 전략기치 역할을 하게 될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제2통합전산센터)의 준공식이 21일 오후 광주시 서구 풍암동 센터 강당에서 열린다.

제2통합전산센터 건립공사에 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 지 국비와 지방비 2천458억원이 투입됐으며, 전체면적 3만3천563㎡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다.

센터에는 제1통합전산센터로 이전하지 않은 24개 부처의 정보 시스템이 통합 운영된다. 24개 부 처는 건설교통부·농림부·법무부·여성가족부·외교통상부·통 일부·기획예산처·검찰청·경찰청·국세청·기상청·특허청·농촌진흥청·문화재청·병무청·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중소기업청·해양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비상기획위원회·중소기업특별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 등이다.

이들 부처는 12월까지 서버 1천555대를 비롯한 전산장비 3천580여대 분량의 시스템을 이곳으 로 이전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이전 작업은 이달 현재 74%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센터 유치로 광주에는 4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3천900억원의 경제유발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센터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IT 연관기업의 광주 이전 등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센터가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센터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자연구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프로그래밍의조경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 나주공통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8개 기관과 함께 지역 IT인프라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준공식에는 유영환 정보통신부장관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멀티플렉스 이용객 26% “사고위험 느꼈다”

광주시내 멀티플렉스 이용객 4명 가운데 1명은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광주 시내 멀티플렉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6.2%가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멀티플렉스 이용자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은 ‘내장재 유독가스’, ‘좁은 출입구’, ‘어두운 조명’, ‘소방시설 고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또 멀티플렉스에서 위험 대비 안내 방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84.8%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47.1%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및 시스템 구축’을 들었다.

경찰서는 최근 광주시내 14세 이상의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서면을 통해 멀티플렉스의 안전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구도심 초등학교 교실 123개 방치

광주 구도심 지역 등의 초등학교 교실 상당수가 방치되고 있다.

19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 13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개 학교의 123개 교실이 빈 채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유 교실은 동구 수향 초등학교의 경우 30개로 가장 많았고, 양동(8개), 대상(6개), 양산(5개) 초등학교 등 구도심이나 개발이 더딘 지역의 초등학교에 주로 분포했다.

광산구 송정동, 비아 초등학교 등 농촌 지역 초등학교도 1~3개의 교실이 비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빛고을(12개), 분촌(11개), 도산(7개) 초등학교 등 최근 3년새 개교한 학교들도 유유교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들 학교는 인근에 조성중인 택지구에 입주자가 완결되는 대로 빈 교실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시 교육청은 보고 있다.

시 교육청은 구도심 지역도 재개발이 끝나면 교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도심 활성화 사업이 언제 완료 될지 미지수인데다 교실도 이미 노후돼 리모델링 등 대책이 필요할 실정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안순일 교육감 ‘10大 과제’ 선정

광주 YMCA 제안

광주 YMCA는 19일 안순일 광주시 교육감이 우선 추진해야 할 10대 공약을 선정 발표했다.

YMCA는 이날 “지난 7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만큼 지난해 선거에서 안 교육감이 제시한 30여 개의 공약 가운데 우선 추진돼야 할 10개를 교육단체와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YMCA는 ▲인사행정 전산화▲공개 임차제도 정착▲시민참여 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광주교육의 청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교육 복지’를 위해 ▲복지단체와 네트워크 형성 ▲지역별 종합특수교육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YMCA는 ▲자치단체 전입금 확보 ▲불요불급한 예산 축소 등이 교육부채 해결과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e-러닝 강화 ▲지역중심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제시했고, ‘학교급식 식자재 우수농산물 사용’을 위해서는 ▲우수 농산물 업체 우선 계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YMCA는 앞서 15일에는 안 교육감에게 지난 1년 동안의 공약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 공약이행 평가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댄 재산압류·신용정보 공개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면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뿐 아니라,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이 공개된다.

광주시는 19일 “매년 3억원의 체납액이 누증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차질이 발생해 이달부터 12월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원자에게 정화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바다면적 합계 160㎡ 이상의 시설물(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부과된다.

광주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은 11월 현재 180억원으로, 올해 들어 서만 부과액 218억5천만원 가운데 29%인 62억4천만원이 체납됐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모든 체납자에게 전화 독촉 등을 통해 납부를 권유하는 한편,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해 발견된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광주시가 500만원 이상 환경개선부담금 고액 체납자 42명에 대해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동차에 부과된 장기체납금 중 폐차, 도난으로 사용이 폐지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비교세 조치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생활안내		신고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기장법률상담소 모란배재회성책상담소 671-4050 광주 YM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민안이 1388 국제종합상담센터 국제청 1588-0060 영문인원상담 광주전남법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M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극구 369-9881	학교폭력 국민안이 112 광주경찰청 222-0112 전남경찰청 36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민안이 1366 여가동수사대 (광주) 229-0118 (전남) 367-011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이동학대예방센터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1389	

달마가 광주에 온 까닭은? 시험, 우월: 국민 불합격에 힘들어하는 불치님들을 위하여

행운의 무보시 달마도 받아가세요.

· 일시 : 11월 21일~23일 13일간 매일 선착순 100명
 · 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달마로 100 (광산1동 700-104)

행운의 무보시 달마도... (text about the event)

행운의 무보시 달마도... (text about the event)

행운의 무보시 달마도... (text about the event)

행운의 무보시 달마도

달마가 광주에 온 까닭은? 시험, 우월: 국민 불합격에 힘들어하는 불치님들을 위하여 문의 : 062)827-5550